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2008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1) 성취의 이론적 토대, (2)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 (3)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4) 문화적 배경과 국가간 비교, (5) 한국 사회의 맥락과 과제라는 하위주제들을 다루는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특집호의 배경이 된 ‘2006 아시아 교육의 기적 국제학술대회’를 개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교육의 현실을 SWOT 접근의 틀에 기초해서 약점, 위협, 기회, 강점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2006 국제학술대회의 목표와 의의를 검토하였다. 셋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특집호 제작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2006 국제학술대회 및 특집호의 한계와 가능성이 진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와 삶의 질의 문제 및 토착심리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주요어 : 2006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교육의 기적, 200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특집호, 교육적 성취, SWOT 접근, 삶의 질, 성취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는 ‘2006 아시아 교육의 기적 국제학술대회’에 토대하여 제작되었다. 2006 국제학술대회는 인하대학교 홍승용 총장의 탁월한 비전과 통찰력 그리고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으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하대 교육심리전공 박사(대표: 정갑순 회장) 및 대학원생(대표: 허희숙 원장)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 한국 사회문제심리학회 간사(탁수연 박사, 김영훈 간사 등)의 이무 표현하기 어려운 노고, 인하대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도움 덕분에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환진 과장의 뛰어난 판단력과 후원에 용기를 얻었으며, EBS 권오승 교육제작센터장의 열정적 관심, 놀라운 기부를 아끼지 않은 인천 지역사회 많은 분들께 뜨거운 고마움을 표한다.

† 교신저자 : 김의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uicholk@chol.com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들어가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는 2000년부터 특집호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한국 심리학의 정체성과 도전: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적 접근’(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 ‘한국 사회와 안전문화’(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3)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4)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 ‘한국 사회의 삶의 질’(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6)과 같은 주제를 다루어 왔다. 이번 2008년 14권 1호 특집호에서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약 60년 전후까지만 해도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역경을 딛고 현재 한국 사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어 왔으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기반이 되어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보다 질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

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그간의 학문적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성과들을 개관하고 핵심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는 학문의 장을,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특집호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SWOT 접근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개최된 2006 국제학술대회를 개관하며, 국제학술대회를 토대로 제작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계와 가능성을 진단하여, 나아가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에서 다루려는 내용들을 그림 1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첫째로,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SWOT 접근의 틀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즉 약점 요인, 위협 요인, 기회 요인, 강점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현실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망을 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성취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방향과,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교육 현실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2006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개관을 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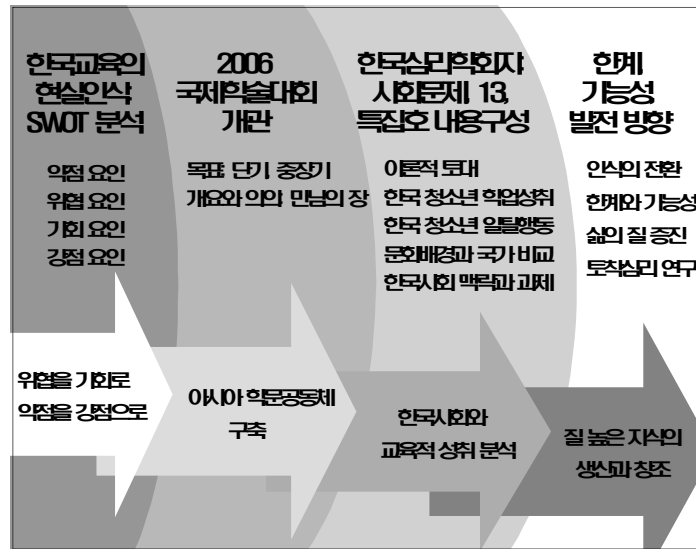


그림 1. 이 글의 목적과 내용

먼저 2006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단기적 중 장기적 목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2006 국제학술대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것이 함축하는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세 번째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제작의 배경과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특집호 제작의 배경이 된 2006 국제학술대회와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특집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집호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성취의 이론적 토대(1부),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2부), 성취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3부), 문화적 배경과 국가간 비교(4부), 한국 사회의 맥락과 과제(5부)라는 다섯 영역의 소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들에 토대하여, 한

계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를 향한 현실인식 전환의 필요성, 2006 국제학술대회와 특집호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의 확산을 이룩해 나갈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과, 현실과 소통하는 이론으로서 한국인 성취에 관한 토착심리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 교육의 현실 분석

한국 교육의 현실을 SWOT 접근의 틀에 기초하여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환경의 면에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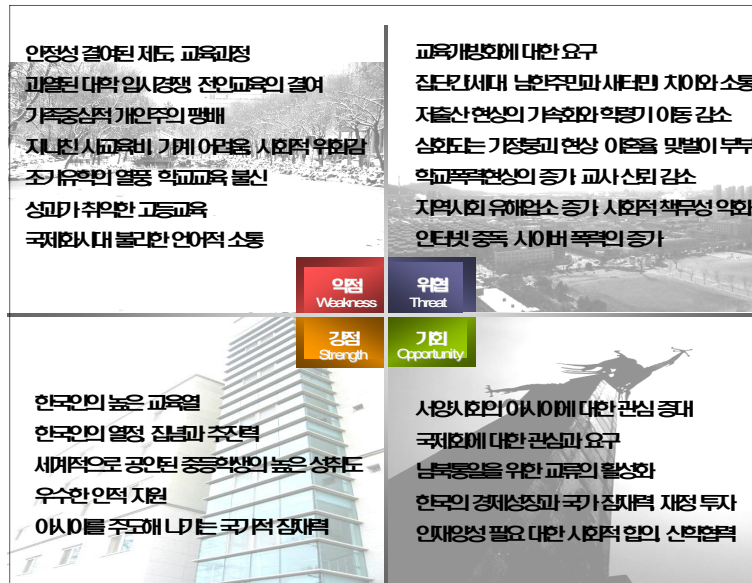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교육의 현실 분석: SWOT 접근

약점 요인(Weakness)

한국 교육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측면에서 약점 요인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등의 면에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학부모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제도로 입시제도를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근간이 뒤바뀌었으며, 적게는 교육부총리가 바뀔 때마다 큰 변동이 있어왔다. 또한 교육과정도 충실히 실시하여 공과가 정확히 평가되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곤 하였다. 물론 분명한 이유와 각각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잦은 변동은 일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것은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에서의 성패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 대학에 진학하는 여부가 직업의 선택에서부터 사회생활 성공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사들의 관심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중등교육이 본래의 교육목표에 충실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합격을 위한 성적지상주의는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고 지식습득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는 정의적 측면이나 건강한 신체의 발달 등, 전인교육의 목표를 충실하게 실천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소년 본인들은 또래와의 협동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에 익숙해지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길들여진다. 부모들도 다른 아이들 이야 어떻게 되었건 자기자녀의 교육에만 전력투구를 한다. 특별히 인문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과제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얼마나 많이 입학할 수 있는가를 시급한 당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풍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의 추구보다 가족중심적 개인주의가 팽배 할 수 밖에 없다. 내집단 구성원끼리의 결속력은 높고 헌신적인 자세로 도우지만, 그 내집단을 벗어나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경계 또는 공격이 강화된다.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가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부모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교육투자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가 고등학교 시기에서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여러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요즘은 영어 유치원 등 특화된 유아교육 기관에 경쟁적으로 자녀를 보냄으로써, 부모가 떠안아야 하는 교육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6,787가구의 자녀 11,8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과,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이 2억3199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2007년 10월 17일).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양육비의 주요 유치원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

비와 같은 공교육비와, 개인과의 피아노 미술 등 예능계학원비 등 사교육비, 그리고 약값, 교통통신비, 옷값, 용돈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세부 항목을 보면 대부분 교육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4%이고, 가구 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는 56%나 되었다. 이와같은 교육비를 포함하는 과중한 자녀양육비의 부담은, 한국 가정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자녀교육비 투자의 격차는 사회적 위화감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들이 가구 소비지출의 반 이상을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교육에 대한 강한 전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예체능 등 특수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재능이 있는 자녀들을 조기유학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부적응하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현실 회피를 선택하여 자녀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외로 보내기도 한다. 또는 자녀가 한국에서 평범하게 지내지만,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피해 선진국에 가면 영어 하나라도 확실하게 잘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해외 유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한국 부모들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조기유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기유학은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족해체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조기유학에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외국의 문화풍토 속에 방치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기유학이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입시를 향한 파행적인 중등교육이나 불필요한 조기유학이 증가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한국의 고등교육에서도 약점 요인들이 있다. 한국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단 대학교에 진학하기만 하면 부모들도 더 이상 성취압력을 가하지 않으며, 학교도 모든 것을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매우 느슨해진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도 학문에 몰입하기 보다는 전공에 관계없이 취업 준비에 바쁘다. 결국 한국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작용으로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성과는 낮은 편이다.

생산된 지식은 활발한 국제적 학문 교류를 통해 확대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는 모국어인 국어와 문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본질적인 내용의 심화에 쏟아야할 시간을,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한 영어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표면적 교육과정이나 또는 개인적 공부시간으로 투입되는 영어공부의 시간은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언어적 소통의 장벽은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과들을 국제사회에서 교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언어의 차이가 단순히 소통의 장벽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언어의 차이는 사고구조와 논리의 질적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권 문화에서의 사고구조나 논리체계가 세계를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질적으로 다른 한국어 문화에서 독특한 사고구조와 논리체계가 무시되고, 매우 의미있는 성과들이 국제무대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위협 요인(Threa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 내부에 많은 취약점이 있는 현실에서, 주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개방화의 압력은 대표적인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방화가 되면 외국의 학교들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투자를 하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선진국의 질 높은 교육이나 학위를 받는 것이 가능하면, 외국 학교 입학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교육계는 큰 도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지만 동시에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외국학교들과 직접 비교 평가되는 시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각 급 학교는 특성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하지 못하면 존재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도 수월성을 갖추므로써 교육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자생적 길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의 교육개방화 요구만이 아니

라,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있다. 그 중 하나로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와 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집단간 차이 중에 세대차이를 생각해 보자. 청소년 세대들의 가치인식은 기성세대인 그들의 부모나 교사들과 큰 차이(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단순한 차이에 그치지 않고 때로 세대 간 대화 단절이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들은 GNP \$20,000을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개인의 흥미와 개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풍토에서 자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과 고통의 역경을 이겨온 기성세대들과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가족이나 집단의 생존 문제가 절박했던 기성세대들과는 기본적인 가정이 다르다. 이러한 세대간 차이 외에도 남한주민과 새터민과의 차이(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새터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목숨을 건 탈출은 계속될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 장기간에 걸쳐 다른 이념체제 속에서 기본적 가치가 다르고 생활여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왔다. 새터민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더불어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새터민 수의 증가는 개인적인 부적응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한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집단 간 차이와 의사소통의 단절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의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

농경시대에는 가족의 수가 가정경제에 도움

이 되었고 특히 유교전통의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대를 잇는다는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갖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im, Park, Kwon & Koo, 2005). 한국 사회의 평균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와 같은 경제요인과 더불어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어머니들의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의 현저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젊은 어머니들은 과거 할머니 세대와 달리 자녀가 노후에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는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개인 가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유치원의 원아모집이나 초등학교의 학급수 감소만이 아니라,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과거의 어머니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부부관계가 불만스러워도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가정을 지키기보다,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으로 인식함으로써 이혼의 선택이 과거보다 쉽게 정당화 되고 있다.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정붕괴현상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리가 결여되면서 자녀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도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에 전업주부로

남아 현모양처만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으로만 인식되기보다 이제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도 되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외조와 자녀교육 및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공적인 교육기관이나, 현실적으로 학교가 결손된 가정의 대리 역할까지 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만 밤낮으로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교사가 개별적으로 보살필 여력이 부족하다.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일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학생들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태로 표면적 교육과정을 따라 학업지도만 하기도 바쁜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도 따돌림 등 많은 일탈행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모두 관리하기를 기대하기에는 교사들에게 부과된 일들이 많아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 전수와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도 바쁜 학교의 일정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의지보다는 교사가 알면 문제만 커진다는 낮은 신뢰감을 갖고 있어, 전인교육을 향한 학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유해업소들은 청소년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특별히 학교 주변의 PC방이라든가 전자오락실 등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인터넷 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나 노래방이나 비디오방과 같은 곳에서 일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

즘은 인터넷으로 컴퓨터 오락을 하면서 사이버폭력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 오락에 중독되는 등 일탈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모들이 가정에 없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방치된 아이들은, 학교 일정이 끝나고 이렇게 컴퓨터 오락실로 가서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성세대들이 경제적인 이득에만 몰입하기보다 우리 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관심이 요구된다.

기회 요인(Opportunity)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기회 요인으로 판단되는 긍정적인 환경 조건들 중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 미국 등에서 동아시아계 교포 2세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는, 유교문화권 국가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서양사회에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 Kim, 2004). 그리고 이러한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들의 학업성취과정에 의미 있는 심리적인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되었다. 개인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관계주의에서의 가족가치가 생성해 내는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서구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 끊임없는 분쟁으로 세계 질서를 긴장시키는 이란 이라크를 포함하는 서아시아 등, 아시아는 이제 세계 속에서 발전의 잠재 가능성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

는 지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은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는데,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적 성과는 더욱 주목을 끄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의 체결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서, FTA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이제 국민들은 경제만이 아니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서 모든 뉴스들이 신속히 전달되고 그러한 효율적인 정보망은 이제 지구를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를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매스컴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뉴스를 생활 속에서 접함으로써 국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유학을 보냈던 자녀들이 귀국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인 교류도 더욱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 분야 중에서 대학사회에서 교수들의 국제적인 논문 출판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의 활성화는, 국제화에 대한 요구가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매우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남북 간 교류가 과

거 냉전시대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다. 2000년에 이어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남북 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이산가족의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응의 면에서도 많은 기회와 과제를 제시한다. 앞으로 체제의 통일 이전에 의식과 가치 등 심리적인 면에서 장벽의 제거가 실제로 더 중요하며, 상호 문화적 적응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과 이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낸 대단한 국민적 잠재력도, 우리의 미래 교육에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IMF의 지원을 받는 외환위기의 시대도 있었지만, 전쟁의 폐허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적 잠재력은, 앞으로 교육발전의 잠재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필요한 교육재정을 국가가 충분히 다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적해 볼 때 큰 발전을 해 왔으며, 그러한 성장의 흐름 속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학교 건물들이 불타고 부산에 피난 가서 천막을 치고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절이 불과 수십 년 전임을 상기해 볼 때, 한국인의 대단한 국민적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하나의 저력으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에서 인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지식이 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에 요구되는 인재를 배출하고, 이론과 실체가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증가하고,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이 증대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기부가 활성화되어 교육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학을 다녀온 인재들도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고급 두뇌들이 많아졌다. 경제계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우수한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가 누적되고, 후학의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의 경우에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충실화를 통해 교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연수교육이나 석사학위 취득 등 교사들의 재교육과 자기연찬이 활성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재교육의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연수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된 교사는 교육현장에 복귀했을 때 직무만족도만이 아니라 직무성취도가 향상됨으로써(허회숙, 김의철, 박영신, 2007),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국 사회는 인재양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토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점 요인(Strength)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표적인 강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때,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이라는 답변을 쉽게 떠올리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끼니도 제대로 잇기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대를 겪으면서도, 한국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정성을 다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등잔불을 밝히며 공부하도록 격려했고,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농촌에서는 수입의 원천인 논밭의 일부를 팔기도 하고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소를 팔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를 대학교육까지 시키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지금도 자녀교육을 위해 가계 수입을 아낌없이 쓰는 한국 부모들의 마음과 행동은 과거와 큰 변함이 없다. 한국 부모들의 과잉된 교육열과 사교육비 등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역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절대적인 헌신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적인 성장에 핵심적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부모들의 희생적인 자녀교육은, 결국 한국 사회 발전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가 되어 왔다. 한국전쟁 후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국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어 내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실제적인 투자는,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학업성취를 가능하게 했고(박영신, 김의철, 2002), 이러한 교육적인 성취는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한국 사람은 열정과 인내심 및 추진력이 강하다. 2002 월드컵 축구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

며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목표에 대한 집념이 강한지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단한 에너지는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헌신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도시의 학원에서 밤늦게 학원 수업이 끝날 때 쯤이면, 학원 앞에 차를 대기시키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지원은, 자녀들로부터 금 좌송한 마음을 유발시키고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강한 정신력과 집념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인의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인내심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모나 교사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와 같은 상대평가에서의 경쟁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진정한 질적 성취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과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국인들이 열정과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는 우리 교육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취도의 측정과 해석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위해 시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하는 바 크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성취를 이끌어낸 요인들을 분석하여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다. 단위 학급당 학생 수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이러한 성취를 이끌어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도를 순종하며 열심히 노력한 청소년들에게 큰 격려를 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이러한 교육 당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하는 일에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격

려의 박수가 필요하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인색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이 쇄도한다면, 효능감을 증진시키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일을 성취해나기 어렵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간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집단효능감을 갖고 더욱 성공경험을 증가시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석유나 경제성 있는 천연자원이 많이 생산되지 않고 국토도 좁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반도체나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가능한 것은 인재들의 기여 덕분이며,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들은 바로 한국 사회가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진국의 첨단 학문과 기술을 배워온 경우도 모두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및 헌신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도 체계를 갖추어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교육적 성취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짧은 시기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경제적인 성취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군사독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민주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면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여러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시아를 주도하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고, 희망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중이다. 그동안 한국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로지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희망의 배를 움직이는 연료의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2006 아시아 교육의 기적’ 국제학술대회 개관

한국 전쟁 이후 60년도 채 안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높은 교육열 덕분에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그들 중 학계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증가함에 따라 학문적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한국의 다양한 학문 분야는 큰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 예로 한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학술대회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이며, 최근에 국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대학의 각 전공분야에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빈도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지나간 2006년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개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학회 뉴스레터의 소식란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논문을 다루는 학회지에서 지난 학술대회를 개관할 필요에 대해 더욱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에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육의 기적’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개관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2006 국제학술대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를 주제로 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를 기획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집호 제작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2006 국제학술대회의 기본적인 정신과 실제적인 내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2006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기대, 그것이 갖는 의의,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뜻있는 학문적 활동들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일의 준비나 진행 자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일이 끝난 뒤에 그것의 핵심적 가치와 결과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06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반추의 기회는 피드백의 순환을 통해,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먼저 국제학술대회의 목표를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국제학술대회의 개요와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2006 국제학술대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가장 마지막 장인 ‘IV.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에서 다루기로 한다.

2006 국제학술대회의 목표: 단기적, 중 장기적 시각

2006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교육 현실의 틀(그림 2 참조)에 토대해 볼 때, 교육개방화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위협’) 최근 한국의 학계와 대학사회에서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기회’),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기회’)인데, 중등교육 분야에 비

해 성과가 취약한 고등교육 분야(‘약점’)를 중심으로, 국제공용어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적 성취의 주제(‘강점’)를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의 교육현장과 학계의 우수한 인재들(‘강점’)이, 아시아를 주도하고 질 높은 지식을 생산 창조하는 세계학문의 주도국으로서의 잠재가능성(‘강점’)을 발견하고 확산해 나가는 계기로 삼기위해 시도한 국제학술대회로 정리된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계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였지만, 학문 중심으로 교육이론가들이 참가하는 폐쇄적인 국제학술대회가 아니라, 유 초 중등의 교육실천가와 교육행정가 및 대학에서 여러 전공의 교육의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교육이론을 배우고 나아가서 교육 실천의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교육적 성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계와 교육현장이 상호 교류하는 노력을 국제적인 학술활동의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2006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학술대회의 단기적 목표는, 두 가지 즉 학술활동의 국제교류 시도, 이론과 현장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교육의 기적’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정하여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림 2에서 ‘기회 요인’에 포함하였던 국제화와 질적 수월성의 요구 및 기대를 고등교육의 측면에서 실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국제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실제적인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밝혀진 교육성취와 관련된 이론들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실천분야의 만남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그동안 이론은 이론대로, 교육현장은 현장대로,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가 추구하는 중간 단계의 목표는 아시아 학문공동체의 구축에 있었다. 이러



그림 3. 2006 국제학술대회의 단기적, 중 장기적 목표

한 학문공동체의 구축은 학술활동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에 관련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특집호’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영문 저서를 발행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이 학문적 논의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영문 학술잡지의 창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영문 저서와 영문 학술잡지를 발행해 나갈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과 함께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시아 학문공동체가 결성이 되면, 현재 서구 중심으로 학문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래사회에서는 동 서양이 함께 인간 이해의 탐구를 위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활동과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질 높은 지식의 생산과 창조에 두었다. 한국이 아시아 학문공동체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의 생산과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어 감으로써,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법칙의 규명에 기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었다.

2006 국제학술대회 개요와 의의

2006 국제학술대회 개요

2006 국제학술대회는 인하대학교 교내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인하대 교육연구소와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가 공동 주최

를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과, 언론사로는 EBS와 동아일보가,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인천광역시청과, 대한항공이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였다. 이외에도 YTN과 교육신문, 인천신문 등에서 대대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EBS 11월 9일 ‘현장! 교육’ 프로와 인천신문 10월 30일자에서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기본 정신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다.

2006 국제학술대회의 실제 참가자 수는 총 1,449명(한국인 1,071명, 외국인 123명, 도우미 169명, 공연 팀 86명)으로서, 이틀간 연인원이 약 3,000명이었다. 한국인 1,071명을 학교 급별로 보면,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원감(30명), 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178명), 중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59명), 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84명), 전국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446명) 및 후원자(137명)들로 구성되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가는 21개국이었었는데, 그림 4에 국가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괄호안은 논문발표자 수): 한국(479명), 대만(63명), 중국(39명), 일본(34명), 미국(19명), 필리핀(10명), 싱가포르(9명), 독일(5명), 인도네시아(4명), 이란(4명), 말레이시아(2명), 태국(2명), 인도(2명), 영국(2명), 노르웨이(2명), 뉴질랜드(2명), 오스트레일리아(1명), 캐나다(1명), 이스라엘(1명), 이탈리아(1명), 러시아(1명). 총 논문 발표자 수는 683명이었으며,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은 204명, 한국인은 479명이었다. 총 발표된 논문 편수는 368편이었으며, 그 중에서 외국인 논문이 105편, 한국인 논문이 263편으로 구성되었다. 참가 국가의 수와 참가자 수가 중요하다기 보다, 세계 각국에서 아시아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다



그림 4. 2006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가

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발표의 종류는 초청 기조강연, 심포지엄,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의 네 가지였는데, 초청 기조강연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기본이 되는 철학적 질문으로서 유교철학, 관계주의 및 성취(Hwang, 2006)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 심리학의 과제와 전망(이종한, 2006), 한국 교육의 성취와 교육 발달심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Kim & Park, 2006), 일본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습능력(Sumiya, 2006), 말레이시아 여성의 고등교육(Noor, 2006)에서는 각국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초 중등교육의 발전방향(Na, 2006)과 글로벌 시대 대학의 역할(Hong, 2006)이 검토됨으로써 초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교육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초청 기조강연 외에도 흥미로운 심포지엄들이나 개별 발표들이 많이 있었다. 아시아 학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육에 관심을 갖는 세계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교육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또한 발전 방향

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의 교육 풍토를 고려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2006 국제학술대회의 의의

2006 국제학술대회는 다양한 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적 성취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를 들 수 있다. 한국 중등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는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 학업 성취의 원인과 성취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아시아 교육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발달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의미있는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 학문공동체의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는 비전과 학문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노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적 성취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여러 나라

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 그리고 관련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학문공동체의 구축 가능성을 열어어나가고, 학문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해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만남의 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신선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는 학자들만이 구성된 활동이 되기 쉽고, 더군다나 국제학술대회는 관심있는 전문가 집단만이 참여함으로써 참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6 국제학술대회는 영어와 한국어 발표를 동시적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담당자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현직 초 중 고 교사와 교육행정가인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였다. 학자들 중심으로 이론만 다루기보다, 교육 실천 사례와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됨으로써 생동감있는 논의가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교육복지사업의 실천 사례에 관한 심포지엄 등은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실천가들도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결과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안목을 높임은 물론 교육자로서 소양을 증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되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계의 학술활동을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것으로 거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격려함으로써 효능감을 증진시켰다. 높아진 효능감은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헌신을 다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지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계에서 연구된 성과들은 대부분 학부모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의 배경과 구성

‘특집호’ 제작의 배경

2006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 발달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교육의 기적적인 성과와 그러한 교육적인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그림 5 참고).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 및 아시아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뜻 깊은 기회였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2006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제작의 배경이 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논문들을 선정하고,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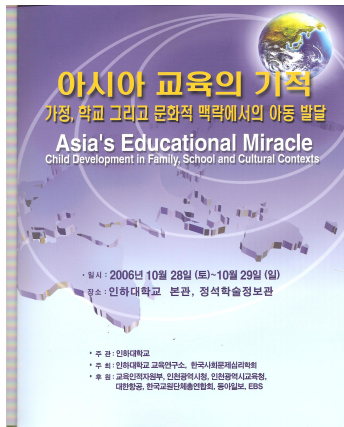


그림 5. 2006 국제학술대회 proceedings

에도 이 분야 전문가들의 욕구를 함께 포함함으로써, 특집호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학회지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 특집호로 정리했다는 뜻이 있다.

‘특집호’의 구성과 내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에서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아시아 교육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006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를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대 주제 아래 다섯 개의 소 주제를 다루는 23편의 논문으로 특집호를 구성하였다. 그림 6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의 구성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집호 1부(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에서는 성취의 이론적 토대와 관련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이 논문(‘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

취(I):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은 특집호 1부에 포함되며, 한국 교육의 현실을 분석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특집호를 개관하여 그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특집호 1부에는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한성열), ‘한국의 교육광풍: 과연 한, 후회, 학습효과의 산물인가?’(허태균, 남궁재은, Wei Zhang)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열의 기반에 있는 심리적인 특징들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특집호 1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3편의 논문은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의 이론적인 토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집호 2부(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중에서도 매우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김의철, 박영신)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에 토대하여 한국 청소년 학업성취의 토착심리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업동기를 다루는 2편의 논문으로서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김아영)과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동기 요인 분석’(정종진)이 포함되었다. 또한 2편의 논문 즉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현황과 교육적 함의’(박승호, 서은희)와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분석’(김주후, 남궁지영)이 자기조절학습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외에 학업과 관련된 흥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김성일, 윤미선, 소연희)를 포함하여, 특집호 2부에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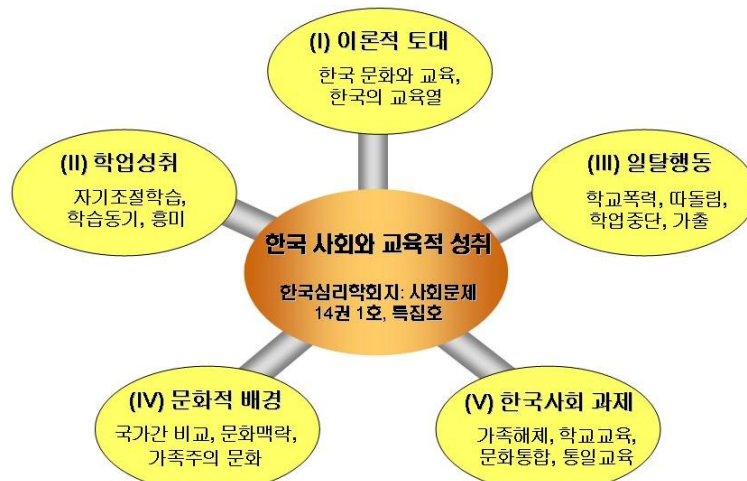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의 구성과 내용

루는 총 6편의 논문은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심도있는 교육심리학적 통찰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집호 3부(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에서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교육적 성취의 그늘에 가려진 문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해당하는 주제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박영신, 김의철)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일탈행동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별히 심리적인 폭력의 문제가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곽금주)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로 인한 가출은 일탈행동으로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한상철)에서는 그러한 가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

교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학업 중단의 문제도 검토되었는데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금명자)를 들 수 있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실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행동들을 모두 망라하지는 못하였고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일탈 등의 주제들이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특집호 3부에 포함된 4편의 논문들은 후속작업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특집호 4부(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에 포함된 총 6편 중에서, 1편의 연구에서 국가간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오현숙, Kirstin, Goth, 민병배). 이외에 2편은 한국적 창의성과 한국적 상담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성은현, 하주현, 한순미, 이정규, 박병기); 상담사례 과정에 반영된 현실역동상담의 특성(장성숙). 또한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에서

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교육열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한국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독특성을 갖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외에 중국과 일본 학자의 논문이 각각 1편씩 포함되었다. ‘A New and Old Approach to Educational Research: The Roles-grafting Research’(Li & Lin), ‘Disaster prevention as community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activity theory’(Suwa, Yamamoto, & Atsumi).

특집호 5부(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에서는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V): 교육적 성취를 통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색’(박영신, 김의철) 논문에서 한국 사회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거시적 맥락에서 교육적 성취를 조망하고자 시도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정태연, 전경숙, 박은미)을 통해, 학교환경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가 미래 사회에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즉 ‘새터민과 남한 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정진경, 조정아),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채정민, 김중남)이 그것이다. 특집호 5부에서 다루어진 4편의 논문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사회현상으로서 교육적 성취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 과제를 교육과 연계하여 형상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 방향

마래를 향한 교육현실 인식의 전환:

위험을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다양한 SWOT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글의 그림 2에서 분석한 내용은 꼬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꼬끼리를 기둥과 같다고 말하는 장님의 인식처럼, 한국의 교육 현실 전반을 정확히 파악했다기보다는 필자의 안목에 기초한 제한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약점과 강점, 위험과 기회 요인이라는 네 개의 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SWOT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확히 탐색해 나가야 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분석의 틀도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관찰해 보면 매우 위협적인 조건도 있고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적 자극을 위협으로 받아들여느냐 또는 기회로 활용하느냐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약한 자극도 충분히 소화해낼 역량이 부족할 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강한 충격도 잘 해결해 내면 그만큼 큰 기회가 된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위협과 기회가 본질적으로 다른 자극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위협으로 또는 기회로 만드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재창조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위협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면 그것은 위협이고, 기회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면 그것은 기회가 됨으로써, 결국은 인간 마음의 준비태세와 지혜의 깊이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림 2에서 지적한 한국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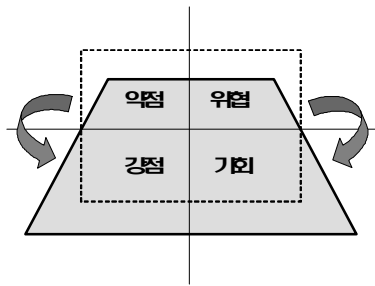


그림 7. 미래를 향한 교육현실 인식의 전환

육현실의 위협적 요소들은 잘만 소화해 내면 그것은 기회요인으로 변환되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전의 앞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위협받는 상황과 요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그치지보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극복해 나가는 전략의 수립 및 실천이라고 본다.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강점으로 전환시키며, 이를 토대로 많은 위협적 요소들을 기회로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위기가 기회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현실 상황에서의 위협을 기회로 변환해 내고, 약점을 강점으로 변환해 내는 힘이, 호모사피엔스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볼 때, 국제화의 요구와 학문의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의 배경이 된 2006 국제학술대회가 추구한 목표의 실천이, 어떠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녔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가능성을 잉태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계와 가능성: 2006 국제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한계

2006 국제학술대회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앞으로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로 연결된다. 2006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천을 거쳐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을 살펴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의미있는 작업의 연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란 시작이 쉽지 않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잘 지속 발전시키려면 시작의 시점에서와는 또 다른 여건의 뒷받침과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꽃 피워질 수 있는 환경적 성숙 없이는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전체 집단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동일한 목표의식을 향해 집단적 합의에 의해 집단효능감을 발휘할 때, 지속적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2002 월드컵에서 모든 국민이 붉은 악마로 되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집단구성원 전체의 자발적 참여와 내면화가 중요하다. 집단내 목표의식의 공유를 통해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의미있는 성과의 누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가 갖는 한계도 여러 가지 있다. 14(1) 특집호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려는 노력

을 하였다. 그렇지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일탈행동과 관련해서도 사이버 일탈 등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특집호에 신고자 계획했던 여러 주제의 논문들이 있었으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게재되지 못한 경우가 여러 편 있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사점을 얻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남지만, 최종적으로 특집호에 게재된 양질의 논문들로 인해, 특집호가 의미있게 구성될 수 있었다. 함께 게재되지 못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이번 특집호에서 함께 다루지 못한 영역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되고 탐색되어야 할 내용들로 남는다.

학문적 성취의 가능성

앞에 기록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2006 국제학술대회는 부족하나마 의욕적인 시도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6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후에 산출된 결과 및, 미래를 향해 열려진 가능성의 세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가 그림 8이다. 그림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학술대회 이후에 연구를 위한 국제적 컨소시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컨소시움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보다 정기적으로 심도있게 진행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컨소시움이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확신하나, 재정적 지원과 국내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이 가능하기 보다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제적인 연구 컨소시움이 공식적으로 발족되지는 않았으나,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학술잡지와 학술 저서의 간행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국문으로 된 학술잡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로 2008년에 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 학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심리 및 발달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논문들을 게재하는 국제학술지로서 아시아교육발달심리학회지(Asian Journal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행을 준비 중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발족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아시아사회심리학회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사회심리학회지(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는 SSCI 잡지로서 국제적인 공신력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시아건강심리학회도 이미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 2006 국제학술대회를 기초로 앞으로 아시아교육및발달심리학회지(Asian Journal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가 의미 있는 영문 학술잡지를 발행하게 되고,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의 심리학 분야의 여러 학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만약 아시아심리학회(Asian Psychological Association)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학문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으로 본다.

영문 학술잡지 외에도 2006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영문 저서도 준비되고 있다. 영문 저서는 아시아 교육의 지적: 심리적, 관계적, 문화적 시각(Asi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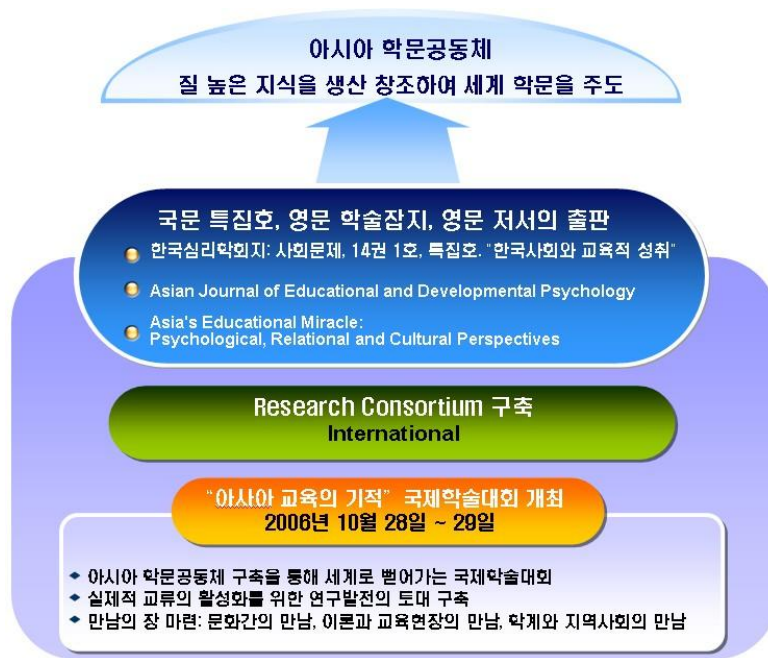


그림 8. 가능성의 추구: 아시아의 학문공동체

Educational Miracle: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perspectives)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Springer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8년에 출판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영문 저서는,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문 저서는 다섯 측면, 즉 (1) Theoretical, conceptual and empirical advances, (2) Conception of self, motivation and attribution, (3) Challenges in education and learning, (4) Education in relational, social and school context, (5) Comparative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로 구조화되었으며,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쓴 23편의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영문 학술잡지의 창간과 영문 저서의 발행 등 학문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연구 컨소시움의 구축과 나아가서 국제학회

조직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심리학회의 분과학회 조직으로 다양한 학회들이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꿈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면, 질 높은 지식을 생산 창조하여 세계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 역할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의 학문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탁월한 통찰력과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회적 지원 등 여러 복합적 요소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문 외적 성취와 관련된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 학문적인 성과와 가능성 외에, 2006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거둔 의미있는 시사점과 관련하여 간략히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2006 국제학술대회 자체가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성취의 모형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Bandura(1997)는 증진된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학업성취의 향상에 매우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 이러한 Bandura의 제안은 검증이 되었다. 즉 부모나 교사 등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고, 높아진 효능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의 틀은 2006 국제학술대회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시장과 교육감이 국제학술대회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며 후원을 함으로써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교육행정가나 교육전문직 종사자와 현장교육자 등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서 의료계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재정적 후원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은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높은 효능감을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학술

대회 준비팀은 소수의 박사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지만, 주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개인효능감이 아니라 집단효능감을 경험하였고, 향상된 효능감을 기반으로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활성화시키는 추진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학술대회의 추진 과정 자체가, 사회적 지원과 효능감 및 성취의 관계를 검증한 실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교육 현장, 학계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론을 추구하는 학문적 활동은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학계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 긴밀히 적용되고, 다시 그러한 검증 결과가 이론의 구축에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 현장도 초·중·고등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6 국제학술대회는 교육 및 심리 이론과 교육 현장 실천의 만남을 추구하고, 학교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나가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었다. 그 한 예로 2006 국제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시대의 초등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현장교육 내용은, 단위 학교의 운영이 학교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ICT 활용 수업 등과 연계하여 호주의 초등학교와 직접적인 사이버 교류를 하고, 아프리카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작은 단위학교가 글로벌 시대의 초등교육을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성공한 예를 보

여주었다. 이러한 예들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실천한 결과에 대해, 학계에서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 주체가 시너지효과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뜻이 있다.

긍정 에너지의 확산: 삶의 질 증진

교육적 성취가 학습자 개인의 성적 향상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의 합격과 같은 미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학교 성적 향상과 결과적인 대학입시 합격이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지는 하나, 교육적 성취를 학업성취에만 제한하지 말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학교성적은 향상되었지만 또래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하지 못해 나중에 성장하여 동료들과 어울려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학창시절의 사회 점수는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입시에는 합격했지만 지나친 과로로 치명적인 만성질환을 갖게 되었다면, 학업성취가 갖는 의미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으로서의 인격 함양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하고 학업성취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적 성취를 다룬다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면만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적 성취라는 구인에 접근할 때, 개인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의 성취가 집단과 조직의 성취에 어떠한 유기적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즉 개인의 성취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성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림 9에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성취는 하나의 핵심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적 성취가 개인의 학업성적 향상이나 입학시험 합격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 학습자가 교육적 성취의 결과 획득하는 긍정 에너지는 개인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이 주위로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긍정 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연료와 같은 기본적인 역할을 해 주는 요소들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정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성숙, 조화로운 균형 감각 및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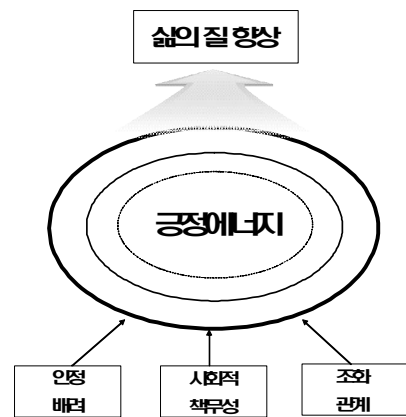


그림 9. 긍정 에너지의 확산: 삶의 질 증진

을 것이다. 교육성취가 단순히 개인 학업성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개인만이 아닌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림 9의 아이디어를 청소년 성취행동과 일탈행동의 관계 맥락 속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성취행동을 빛과 꿈의 세계라고 비유해 본다면, 그 반대편 일탈행동은 어둠과 절망의 세계라 이름 붙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를 준거로 하는 절대평가 기준에서의 성취라는 질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많은 성취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평가 기준에서의 양적 성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다른 지원자보다 점수가 더 나아야 정해진 입학정원 내에 포함되어 대학입학시험에서 성취경험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더 못한 대상들이 존재함으로써,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급에서도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다른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위치를 누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취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절망과 희생을 토대로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희생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빛을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 또는 각 분야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미덕을 추구해서라기 보다, 사회적 책무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그 개인의 성취결과가 함축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추구하고,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인 성취를 한 학생만 칭찬을 받는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성취에만 몰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는 계속 각박해질 것이며,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절망을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면, 다양한 계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는 질서가 파괴될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높은 삶의 질을 평화롭게 누리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고리에 대한 통찰을 갖고, 차분히 우리의 교육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특집호의 대주제가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인데, 이와 무관해 보이는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라는 소주제를 다섯 영역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한 기획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과 맞물려 있다. 우리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또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의 주제를 탐구할 때,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동 또는 한국 사회 성취의 역기능 문제를 함께 인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진 자 또는 성취한 자들의 사회적 책무성이 빛을 발하고 갖지 못한 자 또는 절망하는 자들의 어둠을 따사롭게 비출 수 있을 때, 성취한 자들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긍정 에너지라고 명명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긍정 에너지를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시

키는 작업에 구성원들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지도자가 구성원을 이끌어 나갈 때, 긍정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자들이 긍정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서 심리적인 자기효능감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과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들이 확산될 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질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구현(박영신, 2007)해 나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정신 중에,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운 정신들로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국제화란 외국의 것을 정신없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의 가치있는 것은 겸허히 배우고, 우리의 가치있는 것은 당당히 가르쳐 주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의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칼 지브란이 말하는 신전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우리의 가치로운 정신들을 모색하는 작업이 인문사회계열의 각 전공분야에서 치열하게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실과 소통하는 이론: 토착심리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교육 현장과 학계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과 학계와 지역사회간의 이러한 상호 피드백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격차를 감소시키고, 이론과 실

천의 조화를 꾀해 나가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 나갈 수 있다. 특히 교육이나 성취와 관련된 이론은 더욱 현장에서의 실행이라는 지식의 행동화 또는 실천화를 통해, 응용학문으로서 사회윤리적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실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론이 그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명확히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한다. 현실의 뿌리를 명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토착심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 관습 전통 역사 경제 정치,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문화현상을 현실이라는 토양은 함축하고 있다.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현실의 뿌리를 토대로 하여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소리들을 찾아 정리해 내는 작업이다.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그 문화를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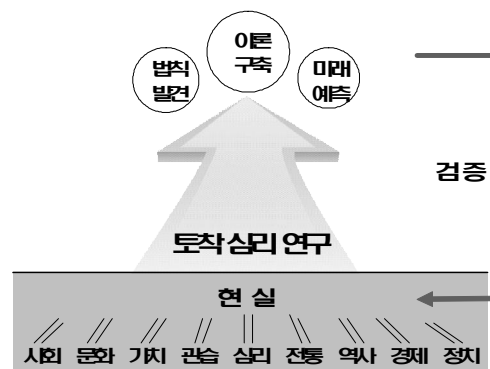


그림 10. 현실과 소통하는 이론: 토착심리연구의 필요성

들어내고 있는 목소리를,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교향악단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곡조처럼, 공통의 소리를 찾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 즉 심리현상들을 꿰뚫는 일관된 법칙을 발견하여 심리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리 즉 이론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을 적합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구축된 이론은 또다시 현실에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검증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올인원하고, 한국의 자녀들이 학업성취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심리적 과정과 행동적 결과들은, 서양의 이론적 틀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 그 저변에 있는 독특한 부모자녀관계 학력주의 등이 서양사회에서와 다른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성취현상을 보편적인 성취동기이론에 의해 설명하기보다, 한국 문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인이 갖는 토착심리 이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동안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미국과 같은 서양 사회에서 채택하는 가정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해석 평가하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한국 사회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서양 사회가 조망하는 틀을 갖고 한국 사람과 사회 및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토착적인 역사와 전통 문화적 뿌리 그 정신의 기반에 대

한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면, 근본적인 이해가 어렵다.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현상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토착심리학이 특별히 동양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Kim, Yang & Hwang, 2006)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착심리학의 중요성은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어(Spielberger, 2004) 토착심리가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포함(Kim & Park, 2004)되었으며,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그 의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그동안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결과들을 부모자녀관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적 성취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성취라는 주제도 한국인 토착심리의 맥락에서 폭넓고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이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한 결과들을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며 아시아 지역 사람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학문공동체가 생산해 내는 결과들이 서양의 학문적 성과들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동양의 토착적인 문화와 정신에 대한 관심과 발전방향의 모색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아시아에서의 교육적 성취’는 한국을 포함하여 학문공동체로서 아시아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논의해 나가는 의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를 주제로

다루었다. 앞으로 여러 계기를 통해 교육적 성취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확산해 나가면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서 동양인의 토착 정신으로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소통해 나가면서도 나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아니라 문화와 문화 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화를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토착심리 연구가 빛을 발해야 하는, 학문연구에서의 상보적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5,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이종한 (2006). 한국 심리학의 과제와 전망. Paper presented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93~95.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조선일보 (2007년 10월 17일). 지식 낳아 대학 졸업까지 2억3199만원 들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3년새 16.8% 늘어. A14면.
-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6,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 성과와 과제: 2003 TIMSS와 OECD/ PISA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ORM 2004-26.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특집호, '한국 심리학의 정체성과 도전: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적 접근'.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특집호, '한국 사회와 안전문화'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한국 사회의 삶의 질’.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33~54.
- 허회숙, 김의철, 박영신 (2007).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 교사 연수에 대한 종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2007년도 제 3차 학술대회 자료집, 189~19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Hong, S. Y. (2006). Creating of a World of Possibilities: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global era.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3~5.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Hwang, K. K. (2006). Confucianism, relationalism, and achievement.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26.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 Investment in children and educational miracle in Korea: An example of a new paradigm of research i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33.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Special Issues*, 338~354.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Na, K. H. (2006). The statu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in Metropolitan City of Incheon: Goal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6~8.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Noor, N. (2006). Women and higher education in Malaysia.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55~56.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Spielberger, C. (Ed.) (2004).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Sumiya, S. (2006).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learning motivation and basic academic abilities: Lessons from the results of longitudinal surveys in Japan. Plenary address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p.67~68.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3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24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I) : Realities, constraints, possibilities and prospects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e special issue of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focuses on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the following five themes: (1) Theoretical analysis of educational achievement; (2) Educational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3) Delinquency among Korean adolescents; (4) Cultural context and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5) Korean society and future prospects. This article analyzes the outcome of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s Educational Miracle*.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facing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Second,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re examined. Third, background and focus of the publication of the special issue are reviewed. Finally,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the special issue a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e need for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are outlined.

Key words :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s Educational Miracle*, Special issue of KJPSI, educational achievement, SWOT analysis, quality of lif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